

6) 재발부위는 국소재발이 11례, 원격전이가 8례였고, 양군사이에 재발양상의 유의있는 차이는 없었다.

7) 약물 및 방사선치료에 따른 부작용은 모두 가역성이었으며, 부작용 정도도 수용할 만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선행약물요법 및 방사선치료 병용요법은 방사선치료 단독요법에 비해 우월한 관해율 및 생존율을 보여주지는 못하였으며, 향후 보다 많은 예를 대상으로 하는 제 III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7

두경부암환자에서 선행항암요법(5-FU, Cisplatin)후 구강점막염 발생과 Allopurinol 예방효과

가톨릭의대 내과, 이비인후과**

강진형* · 문한림 · 홍영선 · 김훈교
이경식 · 김동집 · 조승호** · 서병도**

두경부 암환자에서 5-FU와 cisplatin 병합 선행항암요법시 부작용중 5-FU에 의한 구강점막염은 심한 통증을 일으키며 cisplatin에 의한 오심/구토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항암제치료후 심한 영양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연자들은 1987년 부터 1992년 까지 5-FU와 cisplatin 선행항암요법을 받은 85명의 국소진행성 두경부암환자에서 구강점막염의 발생빈도와 allopurinol의 예방효과를 조사하였다.

1) 대상환자 중 남자가 74명, 여자가 15명이었고, 중앙연령은 53세(19~79세)였다.

2) 원발병소는 nasopharynx 26명, paranasal sinus 18명, larynx 19명, oropharynx 15명, hypopharynx 10명순이었다.

3) 병기는 II기 3명, III기 25명, IV기 61명이었다.

4) 제 1회 항암요법후 구강점막염은 54명(60.7%)에서 발생하였다.

Grade 1 12명, Grade 2 28명, Grade 3 14 명이었다.

5) 15명이 제2회 항암요법시 allopurinol을 투여 받았는데 11명에서 예방효과가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국소진행성 두경부암환자에서 5-FU와 cisplatin 병합선행항암요법시 발생하는 구강점막염의 예방에 allopurinol이 효과적임을 알았다.

28

Treatment Results and Pattern of Failure in Polymorphic Reticulosis

연세의대 치료방사선과

정은지 · 김귀언

1975년 1월부터 1989년 6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치료방사선과에서 Polymorphic Reticulosis로 조직진단되어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임상양상, 병리조직학적 특성, 방사선 치료성적, 예후인자 및 재발양상 등의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Age는 범위가 12~79세(median age 46세, mean age 43세)였고, 40대가 가장 호발 연령군이었으며, 성비는 M : F = 69 : 31로 남성에서 더 호발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 장기에 국한된 solitary lesion이 56명이었고, multiple lesions인 경우가 44명에서 있었다. Ann-Arbor stage IE, IIE가 각각 35, 60례였으며 치료에 따라서는 80년대 중반이후에 일부 환자에서 chemotherapy를 시행하였기때문에 RT alone group이 82명이었고 chemo-radiotherapy group이 18명이었다. 추적관찰기간은 최소 2개월, 최대 150개월이었다(median 35개월, mean 50개월).

방사선 치료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4MV LINAC 또는 Co-60 teletherapy unit를 이용해 local field RT로 26-70 Gy(mean dose 50.2Gy) 조사하였다. 29명의 환자에서 병리조직 slide의 재검토가 가능했는데 Immunohistochemical study 상 모두 T-cell lymphoma에 합당한 소견이었다.

방사선치료후 3개월에 추적관찰한 국소관해율은 완전관해 65명(65%), 부분관해 21명(21%), 였으며 나머지 14명은 NR or PD 양상을 보였다.

치료 후 재발양상을 고찰해 보면 국소재발만 보인 사람이 33명, 국소재발및 원격전이를 모두 발생한 사람이 13명 있었고, 원격전이만 보인 사람이 8명

이어서, local control rate 54% 였다.

전체 100명의 overall 5 year actuarial survival은 38.4%이고 이를 예상되는 몇가지 예후인자에 따라 분석해보면 Ann-Arbor stage IE/II에서 64.4%/25.5%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solitary/multiple -47.5%/24.2%,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치료방법에 따라서는 chemotherapy+RT(n=18)은 41.9%, RT alone군(n=23)은 38.3%로 두 군간에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p>0.05). 방사선치료후 response에 따라서는 CR을 보인 65명의 5YSR 57.5%이고, 나머지 PR인 21명은 5.5%로 두 group간에 유의한 생존율의 차이를 보였다(P<0.01).

방사선 치료후 추적관찰 중 fibrosis외에 특별한 방사선 후유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후향적 분석으로 polymorphic reticulosis에서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후인자들은 Ann-Arbor stage, number of involved site, RT response이고 chemotherapy에 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9

Induction Chemotherapy plus Radiation Compared with Surgery plus Radiation in Patients with Advanced Laryngeal and Hypopharyngeal Cancer

Ki Chang Keum, M.D., Chan Gul Lee, M.D.,
Hyun Soo Shin, M.D., Gwi Eon Kim, M.D.,
Kwang Moon Kim, M.D.,*
Won Pyo Hong, M.D.,*
Jae Kyung Roh, M.D.,**
Byung Soo Kim, M.D.**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Yonsei Cancer Center,** Seoul, Korea*

Background : We performed a retrospective study in patients with previously untreated advanced(Stage III or IV) laryngeal and hypopharyngeal cancer to

compare the results of induction chemotherapy followed by definitive radiation therapy with those of conventional laryngectomy and postoperative radiation therapy

Method : Between 1985 and 1990, twenty-four patients were received one to three cycles of chemotherapy and radiation therapy(6400-7620cGy). Twenty-five patients were received laryngectomy and radical neck dissection(except three patients) and postoperative radiation therapy(4400-7400cGy).

Result : After a median follow-up of 21 months, the actuarial 3-year overall survival rate was 45.1% (CT+RT group) and 54.6%(OP+RT group). The complete response rate was 79%(19/24) and 84%(21/25). The local control rate was 65%(13/20) and 64%(14/22).

Conclusion : These results suggest a role for chemotherapy in patients with advanced laryngeal and hypopharyngeal cancer and indicate that a treatment involving induction chemotherapy and definitive radiation therapy can be effective in preserving the larynx in a high percentage of patients. We also think that for improvement of overall cure rates in advanced laryngeal and hypopharyngeal cancer, it will be required of developing regimen and high level of skill and cooperation among multi-modality therapy

30

Stage I, II Non-Hodgkin's Lymphoma Localized to the Head and Neck : Treatment Results of YUMC

Hong Ryull Pyo, M.D., Chang Ok Suh, M.D.,
Gwi Eon Kim, M.D., John J.K.Loh, M.D.,
Byung Soo Kim, M.D.,*
Jae Kyung Roh, M.D.,*
Won Pyo Hong, M.D.,**
Eun Chang Choi, M.D.**